



HOCKEY

KOREA

발행인: 홍 문표 ▪ 편집: 대한하키협회 ▪ 이메일: soc8800@yahoo.co.kr ▪ 사무국 홈페이지: www.koreahockey.co.kr
발행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올림픽회관 602호 ▪ 전화 02-420-4267 팩스 02-420-4138 ▪ 통권 제 8호 2014년 8월 30일

○ 제2차 이사회 소식



(이사회 사진)



(대표팀 만찬 사진)

2014년 제 2차 이사회회의가 인천선학경기장 하키장 회의실에서 홍문표회장을 비롯 부회장, 이사 등 23명중 15명 성원으로 협회 규약 개정과 발전기금 규정제정 등 안건이 통과 되었으며, 이사회 이후 정상현 여성 위원장 후원으로 남녀 대표선수 들을 격려하는 만찬의 자리를 갖고 동반 금메달을 향한 다짐을 했다.

< 하키 뉴스 >

○ 김제중 하키, 20년만에 '전국 제패' (중·고연맹회장기 중등부 우승)

▲ 김제중 하키부가 제15회 한국 중·고연맹회장기 전국하키대회 및 고교 우수선수 선발전에서 중등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제중(교장 강일영) 하키부가 제15회 한국 중·고연맹회장
기 전국하키대회 및 고교 우수선수 선발전에서 중등부 우승
을 차지했다.

김제중은 지난 27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강호 서울 신암중을 4-2로 대파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는 하키부 창단(1967년) 47년 만에 두 번째로 이룬 쾌
거이자, 지난 1994년 우승한 이래 20년만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비인기 종목인 필드하키의 경우 선수 모집과 운영에 어려
움이 많다는 점에서 김제중 우승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송기산·김태현 교사와
선수들이 합심해 악조건을 뚫고 금자탑을 쌓아 관심이 모
아진다. 이번 대회에서 이민혁(3년)은 최우수선수상을, 양성

우 (3년)도 득점상을 수상했다. 김태현 교사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김제중 관계자는 “이번 우승을 발판으로 김
제중학교 필드하키의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일보 정진우 epicure@jjan.kr >

○ 하키 창곡중·매원중 전국제패 (대통령기 남녀 동반 우승)

▲성남 창곡중과 수원 매원중이 제28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남녀중등부에서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창곡중은 18일 동해 웰빙레포트타운하키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중부 결승에서 인천 산곡남중을 4-0
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창곡중은 시즌 첫 전국대회 우승과 함께 19년만에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창곡
중 황재혁은 남중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돼 곁경사를 누렸고, 배성민은 득점상(3골), 박순봉 감독은 지도

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창곡중은 전반 3분과 후반 5분 배성민의 페널티코너로 2골을
달아난 뒤 후반 15분과 25분에도 천민수와 홍진영이 잇따라
골을 추가해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또 매원중은 같은날 동해 목호여자중학교 하키장에서 열린 대
회 마지막날 여중부 결승에서 목호여중과 전·후반을 1-1로 비
긴 뒤 승부타에서 2-1로 누르고 우승했다.

매원중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하키대회와
지난 5월 소년체전에 이어 시즌 3개 대회를 제패했다. 대통령
기 전국하키대회에선 첫 우승이다.

매원중의 최미진은 MVP에 선정됐으며, 김선식 감독은 지도상
을 받았다.

<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



○ <아시안게임 특집 I> 알고봅시다 - 하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하키 결승 한국-중국 경기 모습.



“한국, 세 번째 동반 우승 도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하키는 비인기 종목임에도 꾸준히 메달을 수확한 효자 종목이다.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대표팀이 금메달 4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따냈다.

여자 대표팀은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를 얻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은 1986년 서울대회부터 1998년 대회까지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하며 아시아 최강으로 군림하기도 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하키 대표팀은 직전 대회의 아쉬움을 지우고 1986년, 1994년 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아시안게임 남녀 동반 우승을 노리고 있다.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남자 대표팀은 4위에 그쳐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여자 대표팀은 은메달을 땀지만 페널티스트로크 끝에 금메달을 놓치는 바람에 아쉬움이 컸다.

남자 대표팀은 장종현(30·김해시청), 유효식(32·성남시청), 남현우(27·국군체육부대)를 필두로, 여자 하키는 김정은(28·아산시청), 천은비(22·평택시청)를 앞세워 금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남녀 대표팀 모두 코치진에 새 피를 수혈할 정도로 메달 사냥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남자 대표팀은 2012 런던올림픽 후 독일 출신 명장 파울 리세크(67) 감독을 코치로 앉혔다. 파울 리세크 코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독일 남자 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끈 지도자다. 남자 대표팀은 리세크 코치의 합류로 독일의 선진 하키를 배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파울 리세크 코치의 풍부한 경험도 선수 단엔 도움이 된다.

여자 대표팀은 김상열 전 중국 여자 대표팀 감독을 고문으로 초빙했다. 김 고문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 여자 대표팀을 대회 3연패로 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결승 상대는 공교롭게도 한국이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중국이 한국의 금빛 전망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김 고문의 합류로 중국 맞춤형 전술을 준비하는 게 한층 수월해졌다.

남자 대표팀은 이달 중국과의 5차례 평가전을 통해 실전 점검을 마쳤다. 아시안게임에서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가 금메달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에 대비한 전술을 실험했다.

여자 대표팀은 최근까지도 남자 고등학교팀을 상대로 연습 경기를 펼치면서 가상 중국 상대 경험을 쌓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 시간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35분씩 전·후반 경기를 했으나 아시안게임부터는 15분씩 4쿼터로 경기가 진행된다. 국제하키연맹(FIH)이 경기의 긴박감을 높이고자 마련한 조치다. 바뀐 규정을 두고 남녀 대표팀의 반응은 온도차가 난다.

신석교 남자 대표팀 감독은 "한국 특유의 '고추장 정신력'은 후반전에서야 드러나는데 새로 바뀐 규정은 유럽 팀 스타일에 더욱 맞는다"면서 다소 아쉬워했다. 반면 한진수 여자 대표팀 감독은 "팀 특성상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경기를 하는데 잠깐씩 쉬면 오히려 선수들의 체력에 좋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porque@yna.co.kr

○<아시안게임 특집Ⅱ> 빛넬 스타 - 장종현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쿠안탄에서 열린 제9회 남자챔피언스 챌린지 하키대회에서 득점왕, 최우수선수(MVP) 상을 휩쓴 장종현이 트로피를 받으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상대팀 경계대상 1순위 에이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장종현(30·김해시청)은 한국 남자 하키 대표팀과 상대하는 팀에 경계대상 1호로 꼽히는 선수다.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포함해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가리지 않고 한국 대표팀의 주 득점원으로 활약했다. 2003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한 장종현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 등 올림픽에 3차례 출전했다.



국제대회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덕분에 독일리그, 네덜란드리그에서 뛰기도 했다. 아시안게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장종현은 2006년 도하 대회, 2010년 광저우 대회에 나섰다.

특히 2006년 도하 대회 때는 축구의 코너킥과 비슷한 페널티코너로만 15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다. 장종현의 활약 덕분에 한국은, 금메달을 따낼 수 있었다. 장종현의 에이스 본능은 최근 대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장종현은 2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대회인 챔피언스 챌린지에서 2012년, 2014년 모두 8골씩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다. 2012년 대회에서 한국을 준우승으로 이끈 그는 2014년 한국을 정상에 앉히고 최우수선수(MVP)까지 거머쥐었다.

지난해 9월 아시아선수권에선 9골을 기록해 득점왕에 올라 한국

의 우승 주역으로 우뚝 섰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장종현에게 지난 대회의 아쉬움을 달랠 기회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대표로 나섰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장종현은 조별리그에서 5골을 올렸지만 토너먼트인 4강 이상부터는 골을 넣지 못했다. 특히 파키스탄과의 4강 기억은 쓰라렸다. 한국은 연장전까지 1-1로 비겨 페널티스트로크에 들어갔다.

장종현은 5번째 키키로 나서 슛에 성공했다. 3-3으로 양팀이 맞서자 6번째 키키로 다시 나섰는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슛에 실패했다. 장종현이 슛에 성공했다면 한국은 결승에 오를 수 있을 터였기에 아쉬움이 컸다. 결국 한국은 7번째 키키까지 가는 승부 끝에 3-4로 저 탈락하고 말았다. 대회 3연패, 아시안게임 5번째 우승도 물 건너 가버렸다. 대표팀 에이스로서 누구보다 미련이 많이 남았을 터다.

신석교 남자 하키 대표팀 감독도 장종현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신 감독은 장종현에 대해 "중요한 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고 어느 시점에 해결해달라고 지시하면 120%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대표팀은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과 금메달 각축을 벌여야 한다. 장종현이 지난 대회에서 끊긴 한국의 금맥을 이으며 한국 남자대표팀의 아시안게임 5번째 우승을 일구는데 앞장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여자하키 김정은 "선배들이 쌓은 명성 다시 이을게요"



"옛 선배들이 잘했는데 지금은 하키 침체기인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잘 쌓아 놓은 명성을 최선을 다해서 잇고 싶어요."

한국 여자 하키 대표팀의 에이스 김정은(28·아산시청)이 여자하키 명예 회복을 부르짖었다. 20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만난 김정은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하키의 부활을 다짐했다. 하키는 비인기 종목임에도 아시안게임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 효자종목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여자하키는 1980~1990년대 아시아 최강이었다. 한국 여자하키 대표팀은 1986년 서울 대회부터 1998년 방콕 대회까지 아시안게임 4연패를 일궜다. 그러나 최근 한국 하키의 명성은 예전 같지 못한 게 사실이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선 은메달을 땀고 2006년엔 4위로 밀려나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이 사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3회 연속 중국에

내주며 아시아 최강 자리도 빼앗겼다. 김종은은 지난 대회 아쉬움을 원동력 삼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국은 4년 전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에 승부타 끝에 은메달에 그친 바 있다. 김종은도 당시 대표팀으로 울분을 삼켰다.

김종은은 "저번에 중국에 져서 이제 우리는 떨어질 때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다 보니 중국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 대회의 아쉬움 때문에 "메달을 따려고 하는 마음이 선수단 전체적으로 더욱 강해졌다"며 선수단의 분위기도 전했다.

김종은은 "일단 첫 번째 라이벌은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으로 잡았다"며 "예선에서 일본을 이겨야만 중국을 만나 최고를 가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웃어 보였다. 아직 국가대표 예이스로 꾸준히 대표팀의 부름을 받고 있지만 김종은에게 아직 국제대회 금메달은 없다. 주니어 대표 시절 주니어월드컵에서 우승한 게 전부라고 했다. 김종은은 "성인 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거둔 최고 성적은 4강"이라며 "이번에 금메달을 따서 최고 성적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대회가 열려서 부담도 되지만 홈 이점을 살리면 우리가 상대보다 몇%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김수현기자=porque@yna.co.kr

<각급 대표팀 소식>

1. 여자 국가대표팀 제17회 아시안게임 대비 훈련일정

- 8월 1일~8월 21일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과 5회 연습경기 및 평가전 실시
- 8월 22일~8월 31일
: 인천 선학구장에서 현지 적응훈련 실시 및 국가대표 상비군과의 연습경기를 통한 조직력 및 전략, 전술 완성
-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 여자 국가대표 선수명단
 - 지도자 : 한진수, 김상열, 홍경섭, 김윤, 양혜정
 - 선 수 : 김옥주, 이영실, 천은비, 박기주, 오선순(평택시청), 서정은, 한혜령, 박미현, 김영란((주)KT스포츠), 김종은, 김다래, 장수지, 조은지(아산시청), 안효주(인천시체육회), 김현지(목포시청), 신혜정(한국체대)
-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대표팀 조편성
 - 대회기간 및 장소 : 2014. 9.19 ~ 10. 03
 - 참 가 팀(8팀) :
A조 -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B조 -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홍콩

• 여자대표팀 경기일정

경기일자	시 간	팀 명
9월22일	19:00~20:30	vs 카자흐스탄
9월24일	19:00~20:30	vs 일 본
9월26일	19:00~20:30	vs 홍 콩

9월29일	준결승(미정)	vs 미 정
10월01일	결승(미정)	vs 미 정

2. 남자 국가대표팀 제17회 아시안게임 대비 훈련일정

• 8월 4일~8월 28일

- : 인천 선학구장 현지적응 훈련
- 8월 10일~22일까지 중국팀과의 5차례 연습경기

•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 남자 국가대표 선수명단

- 지도자 : 신석교, 폴 리섹, 유문기, 손왕국, 박광문
- 선 수 : 이명호, 이승일, 홍은성, 유효식, 윤성훈, 오대근, 이남용, 김영진, 이승훈, 현혜성, 김성규(성남시청), 장종현, 강문권, 강문규(김해시청), 남현우(상무), 정만재(인천체육회)

•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대표팀 조편성

- 대회기간 및 장소 : 2014. 9.19 ~ 10. 03
- 참가 팀(10팀) :
A조 -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B조 - 인도, 파키스탄, 오만, 중국, 스리랑카

• 남자대표팀 경기일정

경기일자	시 간	팀 명
9월21일	19:00~20:30	vs 싱가포르
9월23일	19:00~20:30	vs 일 본
9월25일	19:00~20:30	vs 말레이시아
9월27일	19:00~20:30	vs 방글라데시
9월30일	준결승(미정)	vs 미 정
10월2일	결승(미정)	vs 미 정

3. 남녀 국가대표후보선수 하계 합숙훈련

- 3.1) 기 간 : 남자 2014. 07.25 - 08. 13 (20일간)
여자 2014. 07.20 - 08. 08 (20일간)
- 3.2) 장 소 : 인천 선학 하키 하키장(남자) 및 전남 목포 하키경기장(여자)
- 3.3) 인 원 : 계 52명(지도자 4명, 선수 48명)

4. 14세이하 남녀 꿈나무선수 하계 합숙훈련

- 4.1) 기 간 : 2014. 07.28 - 08. 11 (15일간)
- 4.2) 장 소 : 경희대 하키경기장 (남녀)
- 4.3) 인 원 : 계 51명(지도자 7명, 선수 44명)

5. 여자 국가대표 1차 상비군 훈련 결과

- 5.1) 기 간 : 2014. 07.28. - 08. 8 (12일간)
- 5.2) 장 소 : 태릉선수촌 및 한국체대 하키경기장
- 5.3) 인 원 : 계 18명(지도자2명(감독 주,KT 임계숙 감독, 코치 한국체대 임정우 교수), 선수16명)
 - 1차 상비군 평가전 결과 : 1차전- 1:4 , 2차전- 2:2 , 3차전- 1:5 , 4차전- 4:8 , 5차전- 2:4

<시도지부 및 산하연맹 소식>

1. 한국대학실업하키연맹 소식

○ 제2대 회장 당선인 공고

- 2014년 8월 16일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한 제2대 한국대학실업하키연맹(KUIHF) 회장 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당 선 인 •

- 성 명 : 홍 춘 화
- 생 년 월 일 : 1965. 2. 10
- 직업 및 직위 : 사업 / 대표이사

2. 서울시 하키협회 소식

○ 서울대학교 하키부,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와 교류전 가져



광복절 이후,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에서는 한여름 햇볕 보다 더 뜨거운 열정의 하키경기가 펼쳐졌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와 히토츠바시대학교의 교류전 경기였다. 21년간 두터운 친분을 쌓아 온 양 팀이지만 승부에서만큼은 치열했다. 결과는 서로 한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는 임번장 전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하키협회 유승인 실무부회장, 대한하키협회 이명천 부회장, 그리고 88올림픽 대한민국 여자하키 은메달의 주역인 유영채 전 감독 등 많은 하키계 인사들이 참석해 경기를 더욱 빛냈다.

히토츠바시대학교는 동경대학, 교토대학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그중 상학부는 경영학 계열에서 일본내 최고의 입시난이도를 자랑한다. 히토츠바시대학 하키부는 대학하키 2부리그에서 상위권에 속해있는 수준 높은 팀이다. 서울대학교와 히토츠바시대학교는 서로의 경기실력 향상과 문화를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1994년부터 서울과 동경을 한 번씩 번갈아가며 꾸준히 교류전을 이어왔다.

교류전 행사 간 하키시합 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통해 학술교류를 하였고, 서울 시내를 함께 관광하며 서로의 문화도 교류하고 조금 더 친목을 다졌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는 관악구청과 연계하여 일본학생들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여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라도, 언어도 서로 다르지만 하키를

통해 소통할 수 있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로 21년간 이어지는 양 팀 선수들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며 3박 4일의 일정이 너무나 짧게만 느껴진다. (서울대학교 하키부 사진제공)

< 월간하키 협회 소식 >

1. 제28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시상식 장면



2. 제28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결과

구 분	남 중 부	여 중 부	남 고 부	여 고 부	남 대 부	여 대 부	남 일 반	여 일 반
1 위	창곡중	매원중	김해고	태장고	한국체대	인제대	인천시체육회	인천시체육회
2 위	산곡남중	목호여중	달성고	성주여고	순천향대	한국체대	국군체육부대	경북체육회
3 위	김해서중	송곡여중	김제고	제천상고	제주국제대	제주국제대	경북체육회	
	안강중	의림여중	아산고	온양한울고	조선대	경희대		
최우수선수상	황재혁 (창곡중)	최미진 (매원중)	최진현 (김해고)	이지현 (태장고)	이무경 (한국체대)	박미연 (인제대)	한기문 (인천시체육회)	조혜숙 (인천시체육회)
우수선수상	김태현 (산곡남중)	김효민 (목호여중)	신준섭 (달성고)	여환희 (성주여고)	유민영 (순천향대)	국민지 (한국체대)	오상훈 (국군체육부대)	김은실 (경북체육회)
특 점 상	김용후 (산곡남중) 배성민 (창곡중)	최은별 (목호여중)	이현일 (김해고)	이수빈 (태장고)	정영석 (한국체대) 유승주 (순천향대) 김승수 (제주국제대)		임경주 (경북체육회) 정환용 (국군체육부대)	
지 도 상	박순봉 (창곡중)	김선식 (매원중)	김기오 (김해고)	강현영 (태장고)	한형배 (한국체대)	허상영 (인제대)	장정민 (인천시체육회)	황남영 (인천시체육회)

3. 발전기금 모금 현황 (제28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참가비)

* 제28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발전기금 : 4.300.000원

구분	팀명	금액	팀명	금액
고등부 15개팀 (1.500.000)	김해고	100.000	동해상고	100.000
	달성고	100.000	목포여고	100.000
	김제고	100.000	김제여고	100.000
	아산고	100.000	평택여고	100.000
	담양공고	100.000	광주여고	100.000
			태장고	100.000
			성주여고	100.000
			부평여고	100.000
			제천상고	100.000
			은양한울고	100.000
대학부 9개팀 (1.800.000)	조선대	200.000	제주국제대	200.000
	한국체대	200.000	대구과학대	200.000
	순천향대	200.000	경희대	200.000
	제주국제대	200.000	한국체대	200.000
			인제대	200.000
일반부 5개팀 (1.000.000)	국군체육부대	200.000	인천시체육회	200.000
	경북체육회	200.000	경북체육회	200.000
	인천시체육회	200.000		

4. 경기인 부회장단 회의

4.1) 일 시 : 2014년 8월 04일(월) 13시 00분

4.2) 장 소 : 태능 선수촌 챔피언 하우스

5. 인천 아시안 게임 심판관련 소청교육 및 남녀 국가대표팀 및 남자주니어팀 소양교육

5.1) 일 시 : 2014년 8월 04일(월) 14시 30분

5.2) 장 소 : 태능 선수촌 챔피언 하우스

6. 중국 남자 국가대표팀 방한 훈련 및 친선경기 및 만찬

6.1) 일 시 : 2014년 8월10일~8월21일 , 8월19일 (만찬)

6.2) 장 소 : 인천 선학 하키경기장 , 로얄관광호텔(만찬)

6.3) 경기결과 : 5전 4승1무 1차전- 6:1 , 2차전- 4:3 , 3차전- 1:1 , 4차전- 4:2 , 5차전- 1:0

7. 제17회 아시아 경기대회 TD 방한



7.1) TD : Brian Fernandez (말레이시아)

7.2) 기간 : 2014. 8. 20. - 22.

7.3) 장소 : 인천

7.4) 방한 목적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제반 준비사항 점검

7.5) 주요 일정 :

8월 20일	12시	TD 환영만찬
	14시30분	인천선학경기장 및 훈련장 실사
8월 21일	14시30분	전종목 TD 합동회의
8월 22일		한국 출발

8.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 직무 교육

8.1) 일 시 : 2014년 8월 28일(목) 13시 ~ 16시

8.2) 장 소 : 인천 선학 하키 경기장

9. 제2차 이사회 개최

9.1) 일 시 : 2014년 8월 28일(목) 15시

9.2) 장 소 : 인천 선학 하키경기장

10. 말레이시아 남자 국가대표팀 방한 친선경기 실시

10.1) 일 시 : 2014년 8월27일~9월1일

10.2) 장 소 : 인천 선학 하키경기장

10.3) 경기일정 : 8월29일 15시 vs 인천시 체육회 , 8월30일 15시 vs 한국체대

11. 제66차 아시아하키연맹 이사회 참석

11.1) 기 간 : 2014. 8. 31.

11.2)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11.3) 참석자 : 신정희 부회장 (아시아연맹 부회장), 김명성 국제이사

11.4) 주요안건 : 아시아 하키연맹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출

12. 일본 남자 국가대표팀 방한 친선경기 실시

12.1) 일 시 : 2014년 8월31일~9월3일

12.2) 장 소 : 인천 선학 하키경기장

12.3) 경기일정 : 9월1일 15시 vs 한국체대 , 9월2일 16시 vs 인천시 체육회

13. 제3회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행복나눔등록금 캠페인 추천 접수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기간	2014년 7월 21일(월) ~ 2014년 9월 15일(월)
신청방식	타인 추천으로만 신청 가능 (본인추천 불가능, 추천인 1인이 중복 추천 가능)
지원방법	1. 추천방식: 장학회 홈페이지(http://www.aprovision.or.kr)에서 추천서 입력 2. 추천내용: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 노력, 꿈과 열정, 등록금 지원의 필요성 등 3. 행복나눔문의센터: (02)498-7979
선발절차 지원안내	1. 1차 선발(약 1,000명)→ 2차 방문인터뷰→ 최종선발(700명) 2. 지원안내: 최종 선발자는 2015년도 1학기 등록금 실납부금액 전액지급 3. 최종 선발자 발표: 2014년 11월 11일 (홈페이지 게재) 4. 장학증서 수여식: 2014년 11월 22일 (홈페이지 게재)
유의사항	1. 저소득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부여 (추천받는 학생 및 추천받는 학생 가족에 해당) 2. 타인추천만 가능 (본인추천 불가능), 추천인 1인이 중복 추천 가능 3. 타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시 지원 불가 (단, 국가장학금, 성적/근로 장학금 제외) 4. 대학교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생 등 학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가능 5. 대학원생, 해외유학생 지원 불가 6. 일부 체육특기생 및 해외동포자의 경우 상기 일정과 다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aprovision.or.kr> 및 행복나눔 문의센터 02-498-7979

14. 제17회 아시안게임 입장권 판매 안내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일정과 입장권 가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회 관람과 입장권 구입에 관심있으신 하키인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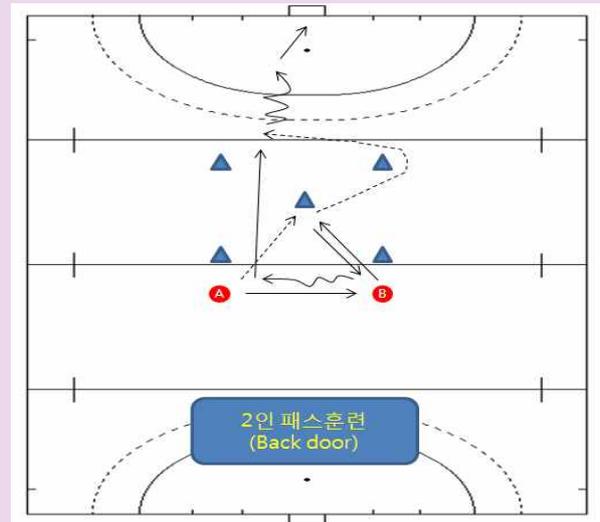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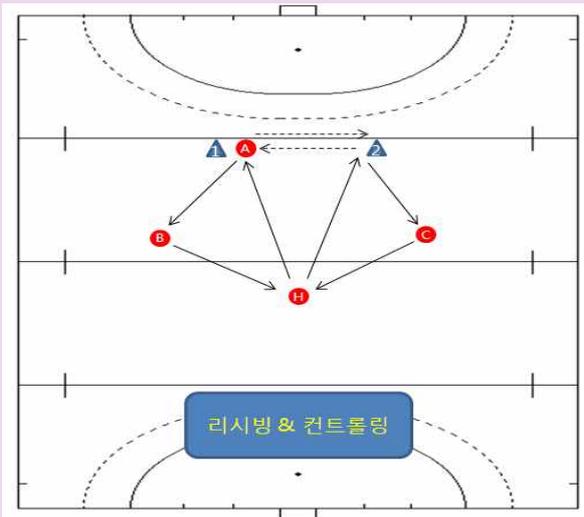
- 다 음 -

- 가. 대 회 명 :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나. 장 소 : 인천시 및 9개 협력도시
- 다. 기 간 : 2014. 9. 19. ~ 10. 4.(16일간)
- 라. 경기일정 및 입장권 가격 : 협회 홈페이지 참조
- 마. 입장권 예매 사이트 : <http://ticket.incheon2014ag.org/>

<기교 : 하키 기술>

제 7편 : HOCKEY TRAINING VII

* 리시빙 과 컨트롤 1, 2



* 리시빙 과 컨트롤 1

마커 1과 2의 간격은 4~5m. H와 마커의 간격은 15~20m. A는 마커1에 서 있다.

H는 마커1로 히트 패스 한다. A는 볼 컨트롤 후 B에게 패스 한다.

H는 A가 B에게 패스 한 즉시, 두번째 공을 마커2로 히트패스한다.

A는 마커2로 이동하여 하이리버스 또는 로우리버스로 볼 컨트롤 한 후 C에게 패스한다.

B는 A로부터 패스 받은 볼을 H가 두번째 볼을 마커2로 패스한 즉시 H에게 패스 한다.

C도 B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패스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번 정도 플레이 한 후 교대한다.

* 리시빙 과 컨트롤 2

마커 1과 2의 간격은 4~5m. H와 마커의 간격은 15~20m A는 마커에 서 있다.

H1은 마커1로 히트 패스 한다.

A는 볼 컨트롤 후 B에게 패스한다. B는 A로부터 패스 받은 볼을 즉시 H1에게 패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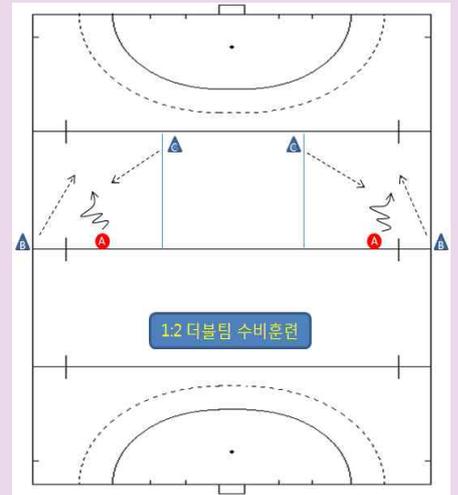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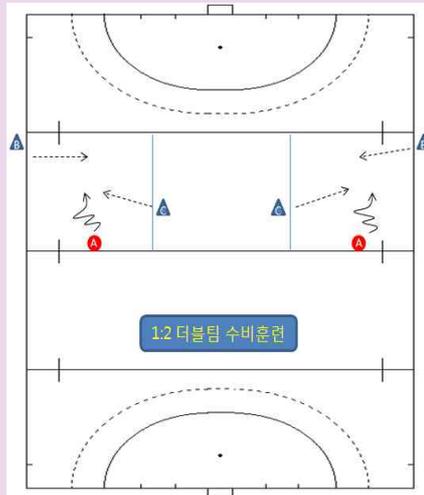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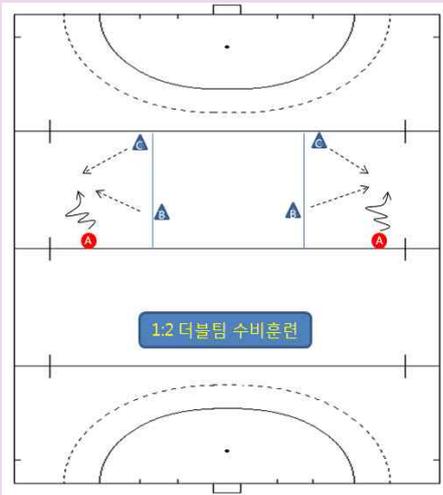
H2는 A가 B에게 패스 한 즉시, 마커2로 히트 패스한다.

A는 마커2로 이동하여 H로부터 패스 받은 볼을 컨트롤 한 후 C에게 패스한다.

C는 A로부터 패스 받은 볼을 즉시 H2에게 패스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번 정도 플레이 한 후 교대한다.

*** 1대2 더블팀 수비훈련 1,2,3**



*** 1대2 더블팀 수비훈련 1**

A가 셀프 패스로 드리블을 한다.

B는 A가 커트인을 하지 못하도록 안쪽을 차단하고 사이드로 채널링한다.

C는 A가 스피드를 이용하여 공간 돌파를 하지 못하도록 채널링한다.

C가 리드하고 A를 사이드 라인 지점으로 채널링하여 B와 더블팀 수비를 시도한다.

지도시 유의점

채널링의 위치선정과 태클 방법, 그리고 상황에 따른 더블팀 위치와 타이밍을 세심하게 지도하도록 한다.

*** 1대2 더블팀 수비훈련 2**

A가 셀프 패스로 드리블을 한다.

C는 A가 커트인을 하지 못하도록 안쪽을 차단하고 사이드로 채널링한다.

B는 C를 커버해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 후 A가 스피드를 이용하여 공간 돌파를 하지 못하도록 채널링한다.

B가 리드하고 A를 사이드 라인 지점으로 채널링하여 C와 더블팀 수비를 시도한다.

지도시 유의점

채널링의 위치선정과 태클 방법, 그리고 상황에 따른 더블팀 위치와 타이밍을 세심하게 지도하도록 한다.

*** 1대2 더블팀 수비훈련 3**

A가 셀프 패스로 드리블을 한다.

C는 A가 커트인을 하지 못하도록 안쪽을 차단하고 사이드로 채널링한다.

B는 A가 스피드를 이용하여 공간 돌파를 하지 못하도록 채널링한다.

B가 리드하고 A를 사이드 라인 지점으로 채널링하여 C와 더블팀 수비를 시도한다.

지도시 유의점

채널링의 위치선정과 태클 방법, 그리고 상황에 따른 더블팀 위치와 타이밍을 세심하게 지도하도록 한다.

A가 셀프 패스를 시작하는 즉시 압박하여 더블팀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하키 선수의 컨디션

- 하키 선수의 컨디션

다) 전술적 준비

코치가 경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팀이나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상의 성적을 거두도록 전술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적 준비는 일반적으로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 팀이나 선수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술을 선택하고 전달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전술적 준비는 하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택하고자 하는 전술, 선수개개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지시하며, 만약 경기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술의 수정이나 변화, 선수의 역할 변경 등을 전달하는 시기와 방법을 준비하고 전달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

물론 이러한 전술적 준비는 전혀 새로운내용이 아닌, 이미 전술적 훈련을 통해 향상시키고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체적인 시합 상황을 고려하여 출전 선수들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술적 준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장 적합한 전술을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이는 다양한 전술이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예상되는 경기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전술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적합한 전술의 선택과 실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 출장이 예상되는 상대 팀 선수들의 장·단점을 고려한다.

선수들이 시합에서 자신이 지닌 경기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경기 전에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며, 이러한 최적 컨디션닝을 위한 주요 내용을 일반적 준비와 경기 출전준비로 나누어 살펴본다.

- 팀 선수들의 체력적, 기술적 특성(장·단점)을 상대 팀 선수들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물론 팀 선수 개개인의 신체적 준비 상태를 경기 전에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 날씨, 기온, 습도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발 출장 선수를 선정하고, 환경적 여건에 적합한 공격 및 수비 전술을 선택하며, 전술의 실행 시 선수 개개인의 역할과 강조점, 그리고 주의 사항을 전달한다.

그리고 경기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인에 따라 선수의 교체, 선수의 역할 대체 등을 통해 전술을 수정시키거나 변화시키도록 준비하고, 코치의 그러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 주지시킨다.

경기 규칙상 코치가 경기 중에 자신의 의사를 선수들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긴 설명보다는 간단한 함축적인 단어 형태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선수를 통해서나 미리 약속된 간단한 형태의 사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사전달 방법은 사전 약속이 잘된 경우에 선수들에게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내용 전달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경기 중 전술의 중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도 대체 선수의 기용과 그에 따른 전술적 변화를 준비하고, 선수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준비한다.

다음의 내용은 경기 전 전술적 준비가 경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예선에서는 러시아, 쿠바 등 과거 천적이었던 팀들을 물리쳤고, 8강전에서는 유럽의 강호 프랑스마저 누르면서 한국 여자농구를 1984년 LA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시드니 올림픽 4강 고지에 올려놓은 대표 팀 감독이 이러한 승리의 원인으로 언급한 인터뷰 내용이다.

- 강팀 연파의 비결은 무엇인가?

- 대답 :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비가 먹혀들었다. 맨투맨 수비에 익숙한 상대들이 우리의 지역수비에 크게 당황했다. 맨투맨을 쓰더라도 함정을 만들어놓고 그리로 몰아 사냥하는 방식을 즐겨 썼다. 쿠바와 프랑스전에서 이 작전이 특히 효과를 발휘했다.”

- 여름리그가 끝나고 훈련기간이 짧았을 텐데, 어떻게 준비했나 ?

- 대답 : "시간이 모자라서 가능한 것만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수비, 공격에 걸쳐 3-4가지 아이템만 선수들에게 숙지시켰다. 우수한 선수들인 만큼 실전에서 잘 소화해냈고, 기대하지 않았던 멋진 장면도 만들어냈다.”

(하키 - 대한체육회 체육지도자 훈련지도서에서 발췌)

*** 공지사항**

2014년 1월부터 발간되는 코리아하키 소식지는 협회 사무국 직원이 편집위원이 되어 별도의 예산없이 발간되는 월간지로 하키인들의 소통과 화합, 정보공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회를 후원해주시면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협회의 운영방향과 좋은 소식들을 알림으로서 협회와 하키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월 다양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키를 사랑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하키협회 발전기금 모금

하키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

본 협회에서는 “후원회원 제도”를 통해서 하키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하키 저변확대와 꿈나무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키에 대한 애정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하키 발전 사업부터 꿈나무 지원 육성사업까지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히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원 제도”에 하키 가족 및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기금은 본협회 연간 정규사업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하키발전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사용 용도를 결정함.)

(후원금 지원 신청 양식)

□ 후원자 성명 : _____

□ 후원 금액 : _____

□ 후원자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 후원 계좌 안내 :

- 은행 및 통장 번호 : 수협 / 026-01-181085

- 예금주 : 대한하키협회

□ 후원자를 위한 혜택 :

- 월간 하키소식지 송부

- 하키홈페이지에 기부자 성명 게재

- 행사에 서포터즈로 참여 기회 부여

-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문의사항 : 대한하키협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602호/T. 02-420.4267)